



# 해외 생산기지 줄줄이 ‘셋다운’ 불꺼진 경제영토, 재가동 언제?

코로나19, 車·배터리 등 업계 강타

美·유럽·인도·브라질·필리핀 등 세계 곳곳서 생산공장 가동정지 공장 이어 매장운영까지 멈춰

현대·기아차, 삼성, LG 등 기업 “직원 안전위해 가동 중단 결정 장기화면 피해규모 눈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전세계적 감염 확산)으로 국내 주력 산업의 생산기지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해외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현지 매장 운영까지 멈춰서면서 국내 산업계가 복합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LG, 현대·기아차,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국내 기업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등에 주요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체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유럽, 인도, 브라질 공장의 가동을 멈춘 상태다.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HMM A)은 오는 31일까지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당초 22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던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HMM A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앞서 지난 18일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엔진을 공급받는 기아차 조지아 공장도 가동을 멈췄다.

현대·기아차는 유럽 공장도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 현대차 체코 공장과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이 23일부터 2주간 문을 닫는다. 또 현대차 브라질 상파울루 공장과 인도 첸나이 공장 역시 일시 생산 중단 결정을 내린 상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재가동에 들어간 중국 공장을 제외하고 해외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곳은 현대차 러시아 공장과 터키 공장, 기아차 멕시코 공장 등 3곳뿐이다.

한국타이어도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30일부터 중단한다. 헝가리 공장에 이은 두번째 셋다운이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며 감염 우려가 커지고,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연이어 문을 닫자 타이어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해외 공장을 둔 배터리 업계도 가동 중단에 나선다. 미국 미시간주가 3주간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리면서 LG화학과

삼성SDI의 미국 배터리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LG화학은 “주 정부 지침에 따라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을 4월13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슬로바키아, 인도, 브라질 등에 위치한 텔레비전·스마트폰 공장 가동을 잇따라 중단한 상태다. 미국과 캐나다의 오프라인 매장은 지난주부터 폐쇄됐다.

철강업계도 포스코는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가공센터가 줄줄이 문을 닫았다. 현대제철은 현대·기아차 공장 셋다운 영향으로 인도 타밀나두 주 공장 가동을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 다만 철강업계는 자동차, 조선 등 전방 산업의 공장 가동 중단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 철강의 수요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며 “현재는 가동중단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화 될 경우 피해 규모는 견줄 수 없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 같이 살자, 앞으로도



기자 수첩

김재웅  
(산업부)

은 국민이 하나가 됐다.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동참한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정의 손길과 응원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도 힘을 보탤다. 삼성이 글로벌 사업장을 총동원해 마스크 공수작전을 펼쳤고, SK하이닉스는 기부받은 마스크를 사회에 환원했다. LG는 해외에서 격리된 국민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알려지지 않은 선행도 많다.

정부도 화답했다. 경영에 부담이 될만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자금난을 우려해 대규모 지원 정책도 내놨다.

증권가에서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도 나온다. 개인들이 외인들이 팔아치우는 주식을 모조리 사들이면서 주가 폭락 사태를 최소화하면서다. 재계도 자사주 사기에 동참한 덕분에 증시는 일단 반등까지 이뤄낸 상태다.

여기서 끝나면 안된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유통 시장과 금융망이 무너지는 ‘넥스트 코로나19’ 공포가 다시 엄습해오고 있다. 이미 재계는 사회 기여도를 높인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사회 안전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쏟아부은 재정을 어떻게 메꿀지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민들과 기업에 추후 막대한 세금을 물려 ‘줬다 뺏을’ 심산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도 이제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양식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극장 등 전통적인 사업이 크게 무너진 반면, 배달과 웹스트리밍 사업은 대박을 터뜨렸다. 어쩔 수 없는 시대 변화이지만 외면해서는 안된다. 택시 사업을 고사시키려다가 역풍을 맞은 타다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은 국민이 화합하는 역사적인 시기다. 그 누구보다도 슬기롭고 현명하게 전세계적 재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서로 싸우기보다는 함께 살자는 생각으로 미래를 꿈꾸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juk@



봄비에 활짝 핀 꽃처럼 활짝 피어난 화원시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누그러지는 추세를 보인 26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시장에 모처럼 장이 크게 들어섰다.

내리는 봄비에 상인들이 펼친 파라솔이 봄꽃처럼 만개해 있다. 화원시장은 1914년 처음 문을 열어 1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1·6일에는 오일장이 크게 선다.

/연합뉴스

# SK종합화학, 체질개선 ‘고부가화학社’ 거듭

48년 만에 나프타공정 등 가동 중단 고부가화학소재 분야 다편체인지 추진

SK종합화학이 고부가 화학회사로 체질개선에 돌입한다.

SK이노베이션은 SK종합화학이 범용 화학제품 생산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 화학제품 비중을 높이는 사업구조로의 혁신을 위해 시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범용제품 생산공정 일부를 가동 중단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다편체인지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종합화학은 26일 SK울산CLX 내 NCC(제1 나프타분해공정)공정과 EPDM(합성고무제조공정)공정을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SK종합화학은 올해 12월부터 제1 나프타 분해공정인 NCC공정을 48년

만에 가동 중단하기로 했다. 이 NCC 공정은 1972년 상업가동을 개시해 연간 20만톤 규모의 국내 최초 나프타 분해 공정으로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이 공정이 중단되면 SK종합화학의 에틸렌 연간 생산량은 87만톤에서 67만톤으로 줄어든다. NCC 공장에서 원료를 받아 생산하던 3.5만톤 규모의 EPDM공정(1992년 상업 가동 개시)은 2분기 내 가동 중단할 계획이다.

SK종합화학은 “회사는 시황에 민감한 범용제품 비중을 축소하고, 시황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고부가 화학소재 분야로의 다편체인지를 추진해 오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공정 개선과 안정적 운영에 노력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신증설의 영향에 따른 공급과잉, 노후 설비에서 오는 경쟁력 저하 및 그로 인한 안전·환경 문제 등도 고려했다”며 “다만 미래 시황 및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스크랩 등도 검토하고 있으나 그 시기는 부지 활용, 신규 투자 계획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종합화학은 두 공정에서 근무 중인 구성원들에 대해 안정적인 공정 가동 중단 후 개인 의사, 역량, 커리어 등을 감안해 전환배치할 예정이다.

또 두 공정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고객사들에게는 가동 중단 사실을 알리고 제품별 안정적 공급방안을 마련해 고객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양성문 기자

# LG디스플레이 직원 290명 중국 광저우 특별입국 허용

현지 도착 후 일정기간 격리 대형 OLED 패널 생산 지원

LG디스플레이 직원 290여명이 중국으로 특별 입국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LG디스플레이 직원에 대해 특별 입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임직원 290여명이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중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으로 떠났다.

현지에 도착한 임직원들은 회사가 마련한 별도 격리 시설에서 일정 기간

격리된다. 직원들은 우선 한국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격리기간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임직원들은 격리를 끝낸 후 광저우 사업장 양산 준비에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올 1분기로 예정했던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라인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저우는 지난 21일부터 입국자에 대해 전면 무료 핵산검사와 14일간 자택 또는 집중 격리를 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